

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- 배인호 초격차(超格差) 국어 제공

71/100

#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

2023학년도 6월 22~27 풀이시간 :  
 풀이 전 이해도 :            수업 후 이해도 :

(가)  
 강호에 봄이 드니 이 몸이 일이 많다  
 나는 그물 잡고 아이는 밭을 가니  
 뒷 피에 얽기는 약을 언제 캐려 하나니            <제1수>

샷갓에 도롱이 입고 세우(細雨) 중에 호미 메고  
 산전을 흘매다가 녹음에 누웠으니  
 목동이 우양을 몰아다가 잠든 나를 깨와다            <제2수>

대추 불 붉은 곁에 밤은 어이 떨어지며  
 벼 벤 그루에 게는 어이 내리는고  
 술 익자 체 장수 돌아가니 아니 먹고 어이리            <제3수>

피에는 새 다 긁고 들에는 갈 이 없다  
 외로운 배에 샷갓 쓴 저 늙은이  
 뉘대에 맛이 깊도다 눈 깊은 줄 아는가            <제4수>  
 - 황희, 「사시가」 -

(나)  
 건곤이 얼어붙어 삭풍이 몹시 부니  
 하루 쯤다 한들 열흘 추위 어찌할꼬  
 은침을 빼내어 오색실 꿰어 놓고  
 임의 터진 옷을 집고자 하건마는  
 ㉠ 천문구중(天門九重)에 갈 길이 아득하니  
 아녀자 깊은 정을 임이 언제 살피실꼬  
 ㉡ 음력 선달 거의로다 새봄이면 늦으리라  
 동짓날 자정이 지난밤에 돌아오니  
 만호천문(萬戶千門)이 차례로 연다 하되  
 자물쇠를 굳게 잠가 동방(洞房)을 닫았으니  
 눈 위에 서리는 얼마나 녹았으며  
 뜰 가의 매화는 몇 송이 피었는고  
 ㉢ 간장이 다 썩어 닳조차 그쳤으니  
 천 줄기 원루(怨淚)는 피 되어 솟아나고  
 반벽청등(半壁靑燈)은 빛조차 어두워라  
 황금이 많으면 매부(買賦)나 하련마는  
 ㉣ 백일(白日)이 무정하니 뒤집힌 동이에 비칠쏘나  
 평생에 쌓은 죄는 다 나의 탓이로되  
 언어에 공교 없고 눈치 몰라 다닌 일을  
 풀어서 헤여 보고 다시금 생각거든  
 조물주의 처분을 누구에게 물으리오  
 사창 매화 달에 가는 한숨 다시 짓고  
 ㉤ 은쟁(銀箏)을 꺼내어 원곡(怨曲)을 슬피 타니  
 주현(朱絃) 끊어져 다시 잇기 어려워라  
 차라리 죽어서 자규의 닢이 되어  
 밤마다 이화에 피눈물 울어 내어

오경에 잔월(殘月)을 섞어 임의 잠을 깨우리라  
 - 조우인, 「자도사」 -

(다)  
 그 집은 그 집 아이들에게 작은 우주였다. 그곳에는 많은 비밀이 있었다. 자연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비밀이 감춰져 있었다. 그는 그 집에서 크면서 자연 속에 감춰진 **비밀들** 을 깨달아 갔다.  
 석양의 북새, 혹은 **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**를 보고 그는 비설 거지를 했다. 그런 다음 날은 틀림없이 **비가** 올 것이므로. 비가온 날 저녁에는 또 지렁이가 밤새 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. 똑뚜르 똑뚜르 하는 지렁이 울음소리. 냄새와 소리와 맛과 색깔과 형태 등이 그 집에서는 선명했다. 모든 것들이 말이다. 왜냐하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아침과 낮과 저녁과 밤이 그 집에서는 뚜렷했으므로. 자연이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명료했다.  
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.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하다.  
 병원에서 태어나 수십 군데 이사를 다니고 나서 겨우 장만한 **아파트**. 그 사각진 **콘크리트 벽** 속에 살고 있는 **그의 아이**는 **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다**.  
 돈은 은행에서 나고 먹을 것은 슈퍼에서 나는 것으로 아는 아이는, 수박이 어느 계절의 과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알지 못한다. 아침 저녁의 냄새와 소리와 맛과 형태와 색깔이 어떻게 다른지 알지 못한다.

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그는 그가 나고 성장한 그 노란 집으로 갔다. 팔 남매를 낳고 기르느라 조그마해질 대로 조그마해진 어머니는 바로 자신의 아이들을 낳았던 그 자리에 자신의 몸을 부려 놓고 있었다.  
 그 집, 노란 그 집에 **탄생과 죽음**이 있었다. 그 집 안주인의 죽음 이후 그 집은 적막해졌다. 아무도 그 집에 들어와 살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아이를 그 집에서 낳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죽음 또한 그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. 그 집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난 것이다.  
**우리들의 어머니의 죽음**과 함께 조왕신과 성주신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집은 이제 적막하다. 더 이상의 탄생과 죽음이 없는 우리들의 집은 쓸쓸하다.  
 우리는 오늘 밤도 쓸쓸한 집으로 돌아들 간다.  
 - 공선옥, 「그 시절 우리들의 집」 -

22. (가)~(다)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- ① 어조의 변화를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.
  - ②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.
  - ③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.
  - ④ 초월적 공간을 설정하여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.
  - 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.

23. (가)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<제1수>의 초장, 중장은 풍경 묘사이고, 종장은 이에 대한 감상의 표현이다.
- ② <제2수>의 초장, 중장은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이다.
- ③ <제2수>의 초장과 중장에 있는 인물의 행위는 <제3수>의 초장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.
- ④ <제3수>의 초장의 장면은 중장과 인과적 관계로 연결된다.
- ⑤ <제4수>의 초장의 동적인 분위기는 중장의 정적인 분위기로 전환된다.

24. <보기>에 따라 (나)의 ㉠~㉣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 기>

선생님: 이 작품의 제목에 쓰인 '자도(自悼)'는 '자신을 애도한다'는 뜻으로, 죽음에 건줄 만큼의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낸 것입니다. 이 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봅시다.

- ① ㉠을 통해, 입과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관적 인식이 자신을 애도하게 만든 배경임을 알 수 있어요.
- ② ㉡을 통해, 새봄을 맞이하여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.
- ③ ㉢을 통해, 입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너무나 커서 자신을 애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.
- ④ ㉣을 통해, 무정한 입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바뀔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.
- ⑤ ㉣을 통해, 입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여 내면의 슬픔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.

25. (가)와 (나)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- ① (가)의 '녹음'은 평온한 분위기의, (나)의 '동방'은 암울한 분위기의 장소이다.
- ② (가)의 '언제'는 미래의 어느 시기를, (나)의 '언제'는 과거의 어느 시기를 가리킨다.
- ③ (가)의 '새'와 (나)의 '자규'는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물이다.
- ④ (가)의 '잠든 나'의 '잠'과 (나)의 '입의 잠'은 모두 꿈을 통해서라도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이다.
- ⑤ (가)의 '돌아가니'와 (나)의 '돌아오니'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상황에 기대감을 갖는 계기이다.

26. [비밀들] 을 중심으로 (다)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- ① '그 집'을 떠난 후 그의 오감이 불분명한 것은 비밀들이 그의 '아파트'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.
- ② '그 집 아이들은 '그 집'에서 '낮게 깔리는 굴뚝 연기'에 감춰진 '비'에 관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었다.
- ③ '그의 아이'가 '여름에 긴팔 옷을 입고 겨울에 반팔 옷을 입는' 것은 비밀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.
- ④ '그 집'의 역사가 어머니의 죽음 후 끝났다고 한 것은 비밀들과 함께할 사람들의 '탄생과 죽음'이 사라졌기 때문이다.
- ⑤ '그 사각진 콘크리트 벽' 속에 사는 '그의 아이'는 비밀들을 알아차릴 줄 아는 감각을 익히지 못해 삶이 불분명하다.

27. <보기>를 참고하여 (가)~(다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

<보 기>

시조, 가사, 수필에서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므로 작가 정보를 활용하면 작품을 더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다.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다른 인물로 상징하여 표현하기도 한다. 이 경우에도 작가를 그 인물에 투영해서 읽을 수 있다. (가)는 작가가 나이 들어 벼슬에서 물러나 전원에서 생활하며 지은 시조라는 점, (나)는 작가가 임금에게 충언하는 시를 쓴 죄로 옥에 갇혔을 때 지은 가사라는 점, (다)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반영하여 쓴 수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할 수 있다.

- ① (가)의 '저 늙은이'가 작가라면,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연로한 작가가 느끼는 전원생활의 흥취를 드러낸 것이겠군.
- ② (가)의 '저 늙은이'가 작가가 아니라면, <제4수>는 '낙대'의 깊은 맛에 몰입하며 '나'와는 달리 한가롭게 지내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것이겠군.
- ③ (나)의 '아녀자'가 작가라면, 이 작품은 '은침'과 '오색실'로 '입의 터진 옷'을 깎는 상황을 설정하여 임금에 대한 끈은 충심을 표현한 것이겠군.
- ④ (다)의 '그'가 작가라면, 이 작품은 '그 집'에서 성장하고 떠났던 자신의 경험을 타인의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인 경험에 거리를 두고 객관화하여 표현한 것이겠군.
- ⑤ (다)의 '우리들에' 작가 자신이 포함되므로,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확장하여 유사한 경험을 가진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려 한 것이겠군.